



한국틴스타

2017년 6월
제49호

www.teenstar.or.kr

한국틴스타이고, 인천다운 틴스타

박요환 (세례자 요한) 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사회사목국장

이십년 전 신학교 대학원 세미나로 토착화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다. 토착화에 대한 세미나의 주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각 나라의 전례에 대한 토착화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토착화할 수 있는 전례나 각종 신심행위, 종교행사가 없을까 찾아보고 연구하여 발표하는 것이었다. 제목도 재미있고, 관심이 있던 분야라 그 세미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수업이 깊이 들어갈수록 좌절감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적인 것’, ‘한국인만이 가진 고유한 것’을 찾아내기란 작금에 들어와서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유일하게 찾아낼 수 있는 토착화가 죽은 이들을 위로하는 ‘연도’ 정도 밖에 없다는 좌절감이 이 수업을 통한 나의 결론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사제생활을 이어오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같은 아시아 교회 캄보디아에서 서품식을 보게 되었는데, 착한 목자의 상본에서는 동남아인 목동의 한 예수 목동이 등장하는 그림을 볼 수 있었다. 일본에서도 일본인 성모상을 볼 수 있었다. 일본인 얼굴에 기모노를 입고 있는, 그러나 아직 우리 서양 백인의 예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이 이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복은 입었지만 얼굴은 서양 백인의 성모님 역시 그렇다. 굉장히 어렵고,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인 각종 단체에서도 나타난다. 꾸르실료, ME, 레지오만 보더라도 들어왔던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심지어 꾸르실료의 주제곡이나 레지오 카페나까지 말이다. 어쩌면 유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심성에 사대주의까지 내재되어 있어서 바



꾸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이미 서양화된 사회에서 그 사회 안에서 우리의 심성도 변화를 일으켰으리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틴스타 역시 처음 마주 했을 때 드는 감정은 다른 여타의 단체들이 행하는 수용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우리 정서에 맞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거부함을 느꼈다. 사실 지금도 그러한 거부감에서 벗어났다고 감히 이야기 하지는 못하겠다. 그러고는 덜컥 틴스타 담당 신부가 되어 버렸다. 난감한데 여기에 하나 더 '인천 틴스타'로 새롭게 운영 체계를 전국 한국틴스타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난감하고 어려운 도전이지만 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인천'이라는 지역이 가진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것이다. 항구도시이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보다 외지에서 넘어온 이들이 훨씬 많은 지역, 대도시이지만 상대적으로 가난을 호소하며 "짜다"라는 별명이 붙은 지역, 서울 근교라 문화적 정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특성 속에서 늘 전국의 꼴등을 면치 못하는 청소년 학교들의 문제까지도 어쩌면 인천만이 가지는 특성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지역에 맞는 토착화가 필요하

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총체적 성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인천 교구만이 가지는 틴스타 교안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틴스타와의 관계성도 문제가 되리라 본다. 어디까지가 한국틴스타가 관여해야 하는가? 지역 틴스타(인천)의 자리매김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이다.

나는 인천교구 틴스타를 운영하면서 좋으신 선생님들의 여러 모임을 준비하고 싶다. 그래서 교안팀 구성과 교안 연구에 인천만의 교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틴스타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은근히 바라고 있다. 문제는 시간을 내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기쁘게 이러한 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와 노력이 있다면 인천 교구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또한 교안뿐 아니라 틴스타의 교재연구에도 획일화 되지 않은 우리만의 토착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저 외국에서 생긴 좋은 모임을 그대로 옮긴 사례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고민하고 고민해 보고 싶다. 그것이 인천틴스타가 자리매김하는 길이라고 본다.

감정기록표를 쓰면서

이의정 (마티아) 신부

대전가톨릭대학교 영성부장

지난 1월 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 코스를 마쳤다. 우리의 몸이 관계성 안에서 완성으로 나아감을 보았고 이 과정동안 우리 사이의 많은 나눔을 통해서도 충만해지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그 중 하나 감정에 대해 여기에 공유하고 싶다.

여성이 생리주기에 따라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며 감정의 기복이 생긴다는 말은 들어왔다. 그런데 남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 하면서도 틴스타에서 나누어 준 감정기록표를 약 4개월 동안 써 보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었다.

기분이 상승하며 최고로 좋은 상태에 이르는 때는 공통적으로 수영을 하거나 뒷산을 산책한 날이었다. 그런 날은 몸이 가볍고 정신도 맑아서 무엇이든지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이런 습관은 관계나 일, 기도 모든 삶의 측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나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면 이 습관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반면 회피, 도피의 감정이 일어나는 때는 보통 해야 할 일이 많거나 피곤한 경우이다. 인간적으로 쉬고 싶고 할 수 있다면 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때인데 이때야말로 감정을 잘 조절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형제들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마음을 바꾸어 기쁘게 온 힘을 다해 하려고 할 때 좀 피곤해도 보람이 있음을 본다. 그리고 그날 감정기록표에도 회피의 표시 다음에 기분상승의 표나 지배적 감정이 없다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화가 나고 공격적인 감정은 텔레비전을 통해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왔을 때나 혹은 괜히 특별한 이유 없이 무언가 분출하고 싶고 누군가를 지배하

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경우인데 아마도 남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짐작이 된다. 그러한 감정과 함께 성욕의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때 또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이를 잘 조절하며 성 에너지를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데 쓰도록 독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때이다.

우울과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는 감기에 걸려 아프거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경우이다. 감기의 경우 잘 쉬면서 이러한 감정을 잘 참아낼 필요가 있다. 관계의 어려움은 극복해야할 숙제이다. 어느 날 한 형제에게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을 한 때가 있었는데 돌아서서 보니 후회와 함께 영혼이 내려감이 느껴졌고 어두운 시간이 흐름을 보았다. 자신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존심을 지키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를 뒤로하고 그에게 용서를 청했을 때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감을 느꼈다. 그 이후로 아주 원만한 관계에 남아있을 수 있었는데 정말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기에 주관적일 수 있지만 함께 공감하는 부분도 많으리라 믿는다. 신학생들에게 면담을 통해 물어보았을 때 비슷한 부분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이다. 감정기록표를 쓴 것이 스스로의 감정을 잘 자각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렇기에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그 답도 잘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려운 순간들은 늘 다가오기 마련이고 도전이며 이는 또한 하나의 디딤돌이기도 하다. 자기증여의 모델이신 성삼위를 본받아 우리도 모든 이와 참된 사랑의 관계를 향해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하리라.

여성과 건강 : 생명윤리적 성찰

마리아 루이사 디 피에트로 교수

(Center for Global Health Research and Study 소장) /
이탈리아 국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 앞글 생략 -

여성의 건강과 가임력에 대한 존중의 결여는 한 여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 중에는 피임약이나 낙태약을 사용하여 받는 해악, 감염과 성매개질환에 의한 해악, 인공생식술이 끼치는 위험, 대리모의 상처 등이 있다. [여성은] ‘몸이기도’ 하므로, 원인-결과 전체는 인간학적 문제를 넘어간다. 한 사람이 고통당하면, 몸도 고통당한다. 그리고 몸이 고통당하면, 그 사람도 고통당한다. 몸의 한 부위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몸 전체와 그 사람 전체가 고통당한다.

이 발표에서는 가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생활습관이 어떻게 여성 자신이나 다른 여성들에게 신체적·심리적 해악을 일으키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생활습관과 불임

불임이라는 말은, 피임 없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진지 1-2년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부가 이전에 임신한 일이 없다면, 이것을 ‘일차성 불임’이라고 하며, 이전에 한번 이상 임신을 했었다면, ‘이차성 불임’이라고 한다. 불임의 원인이 남성에게, 여성에게, 혹은 양쪽에게 있는지에 따라 남성 불임, 여성 불임, 부부 불임이라고 부른다. 여성의 가임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에는 여성의 나이가 있다. 사실, 30세가 지나면 가임력은 감소하며, 35-39세에는 자연 임신의 확률이 19-26세 여성의 거의 절반(50%)으로 떨어진다. 반면에, 자연

유산의 위험은 나이와 함께 증가하여, 30세 미만에서는 10%이지만 40세에는 34%까지 올라간다.

첫 임신이 늦어질수록 성 매개질환에 노출되는 시간은 늘어난다. 성관계를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파트너는 많아지는 결과, 감염의 위험은 높아진다. 성 매개질환은 종종 증상이 없고 감염으로 진단되지 않다가 불임이 된 뒤에야 발견되거나, 자궁관 협착이나 심지어 골반염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자궁관, 자궁, 난소에 영향을 준다. 피임과 낙태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각각의 기술은 생식기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가임력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이 호르몬 피임약의 복용을 중단한 후에도, 자궁경부 세포의 파괴나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기능의 장애로 인해 가임력이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피임약 복용과 자궁내장치(IUD) 사용은 자궁관 임신의 비율을 높이며, 이것은 자궁관 불임 혹은 자궁관 절제로 이어진다.

또한, 여성의 체중이 정상 체중보다 10-15% 이상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가임력의 감소를 유발한다.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에 의하면, BMI가 30이상이거나 20미만 일 때 가임력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BMI가 30이상인 여성은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BMI가 20미만인 여성은 운동을 줄이고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만은 낙태 위험 증가, 그리고 고혈압, 임신성 당뇨, 혈전색전증 등 산과적 합병증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 저체중의 경우, 자연

유산과 자궁내 성장지연의 위험이 증가한다.

마리화나나 코카인은 여성의 가임력을 손상시킨다. 가임력을 손상시키는 약물에는 항히스타민제(생식기내 윤희성 감소), 바비튜레이트(뇌하수체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저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배란 저해) 등이 있다.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도 여성 가임력을 감소시키는데, 얼마나 감소될지는 여성의 나이와 사용된 조사량과 시간에 달려 있다. 흡연과 커피도 여성의 가임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생활환경과 노동환경은 여러 방식으로 가임력에 영향을 준다. 음식과 물의 첨가제, 대기오염, 가정과 공장의 오염원 방출 등이 건강과 가임력을 위협한다. 예를 들어, 환경의 독성물질이 남성의 뇌하수체-시상하부-고환 축과 생식세포에 작용하여, 남성 생식기관에 해를 끼친다.

분명한 것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 여성 불임률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사실, 건강이 의료 분야를 넘어 개인과 집단의 선택과 행동을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인간의 건강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것은 권리만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여성의 참된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그 여성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안녕과 도덕적 가치를 책임 있게 조화시키도록 한다는 뜻이다. 여성의 출산적 역할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그 여성의 여성성과 모성을 충만히 실현하

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의 출산(재생산이 아닌)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임력을 위태롭게 할 질병들의 예방과, 출산력을 회복시키고 보조할 치료적 개입을 내포한다. 임신 중에 여성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임신 과정에 해악을 줄 행위들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진정한 건강 교육은, 위험 행동의 결과를 가능한 한 방지하려는 예방법에 국한될 수 없다. 그런 사고방식은 여성이 기존의 생활방식을 지속하도록 고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의식의 결여를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

교육 자체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건강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의식하며,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촉진하는 선택을 내리도록 힘을 북돋우는 것이어야 한다. 건강 교육은 기본적으로 도덕 교육이다. 그것은 특정한 행위를 선택해야 할 이유를 묻는다. 그리고 필요(needs)와 욕구(desires)를 구분하도록 가르친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이 무엇이지를 밝힌다. 도덕 교육의 영역에서 인격 전체를 풍요롭게 해주는 인간 성(sexuality)의 참된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 다음호에 이 글 계속 됩니다 -

우리는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전자파는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발표되고 있다.

관련하여 몇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많은 어린이와 십대들은 베개 밑에 휴대폰을 놓고 잠이 든다.

이들의 두개골은 성인보다 얇고, 뇌는 흡수력이 더 있으며, 전체 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전자파를 받게 된다.

뇌종양이 자라는 것은 수십년이 걸리고 나쁜 영향은 성인이 될 때까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같은 이유로 임신한 여성은 태아가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복부 가까이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서는 안된다.

“태아는 특별히 전자파에 취약하다. 전자파 노출은 뇌신경을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미엘린 덮개의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유아기 아이들은 전자파 방출 장난감들을 가지고 논다. 디지털 치매가 학령기 아동들에게서 보고되고 있다.”

십대 소녀들의 브래지어 안에 휴대폰을 놓아두는 연구에서는 그 부위에서 다양한 초기 유방암을 발달시켰다는 것을 발견했다. 노트북 역시 전자파를 방출한다.

필자는 안전거리 20cm는 너무 짧으니, 사용자들은 그들의 몸을 기기로부터 2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L.Lloyd Morgan, Santosh Kesari, and Santosh Kesari, Devra Lee Davis: 왜 어린이는 성인보다 전자파를 더 흡수하는가 : DOI:10.1016/j.jmau.2014.06.005. Avail.14 July 2014.

<http://www.teenstarprogram.org>



☆ 한국틴스타와 착한목자수녀회가 함께하는 화해 피정 안내

- 주관 및 주최 : 한국틴스타 / 착한목자수녀회
- 대상 :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 (선착순 8명, 당일 접수 안 됨)
- 일정 : 월 1회 개최 (2박 3일) 첫째 날 오후 3시부터 ~ 셋째 날 오후 1시 30분까지
- 날짜 : 2017년 6월 28일(수) ~ 30일(금)
- 장소 : 경기도 가평 성 빈센트 환경마을
- 참가비 : 한국틴스타에서 전액 후원
- 문의 및 접수 : 010-7440-8687



☆ 한국틴스타 2017년 전국교사 모임안내

그 동안 한국틴스타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틴스타 교사로서 새롭게 재충전 할 수 있는 한국틴스타 전국교사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대상 : 한국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 이수자
- 일정 : 2017년 11월 4일(토) 오후 2시부터 ~ 5일(일) 오후 2시30분까지
- 장소 : 갑곶순교성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해안동로1366번길 35 (갑곶리)
- 접수기간 : 9월 25일(월) ~ 10월 22일(일) / 행사준비 관계로 당일 접수 불가
www.teenstar.or.kr 알림란에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kteenstar@hanmail.net)로 접수 바람.
- 참가비 : 40,000원 (우리은행 1005-381-262900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

한국틴스타 지역소식

서울

*지난 3월부터~5월까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자연주기법 전문가 양성과정(나프로임신법)에 틴스타교사 6명이 참가하여 수료를 하였다.

대구

*지난 4월 2일에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인 대구 바틀로교육센터에서 몸기도를 통하여 나의 몸을 성찰함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몸기도 피정을 대구 틴스타 교사들이 함께 하였다.

*그동안 대구틴스타를 담당 해주셨던 황성재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다른곳으로 인사이동 하였고, 2017년 1월 26일부로 대구대교구 청소년교 차장(학교 복음화담당)으로 부임하신 석상희 (요셉) 신부님께서 대구틴스타를 담당 하시게 되었다.

인천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틴스타 수업 관련 토의사항 등을 나누고 있다.

*매월 인천교구에서 열리는 가나강좌는 예비부부들 대상으로 소개 특강을 열고 있다.

*5월 11일 가톨릭대학 성심 교정에서 소개특강을 실시하여 30명 정도가 참석 하였다.

중요
현장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학교	광주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고)	박경단 교사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고)A,B,C,D반	이명호 교사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고)A,B,C반	이유미 교사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고)A,B반	장현옥 교사
		살레시오여자중학교(중)A,B,C반	박경단 교사
		살레시오여자중학교(중)A,B,C반	장현옥 교사
	대구	경산여자중학교 동아리(중)	사금연 교사
		경산여자중학교 동아리(중)	전수영 교사
		근화여자중학교(중)	김외택 교사
		근화여자중학교(중)	사금연 교사
		대건중학교(중)	김외택 교사
		대건중학교(중)	최지인 수녀
		효성중학교(중)	배수경 교사
		효성중학교(중)	사금연 교사
		대구가톨릭대학교(총)A,B반	김정숙 교사
		대구가톨릭대학교(총)A,B반	백민주 교사
		산자연중학교(중)	노연희 교사
		산자연중학교(중)	김성범 교사
	마산	성지여자중학교(중)A,B반	김성민 교사
		성지여자중학교(중)	김수민 교사
		성지여자중학교(중)	김영은 교사
		성지여자중학교(중)	박정희 교사
		성지여자중학교(중)	하채원 교사
		성지여자중학교(중)A,B반	허인화 교사
		성지여자중학교(중)	홍수진 교사
		성지여자중학교(중)	홍예지 교사
		성지여자중학교(중)A,B반	김미진 교사
성지여자고등학교(고)		안경미 교사	
성지여자고등학교(고)A,B반		장은영 교사	
성지여자고등학교(고)A,B반		이연복 교사	

중요
현장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학교	마산	성지여자고등학교(고)	박지영 교사
		성지여자고등학교(고)	권혜정 교사
		성지여자고등학교(고)	정은선 교사
		성지여자고등학교(고)	조경이 교사
		성지여자고등학교(고)	허해선 교사
	부산	서중학교(중)	강형섭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총)	김혜정 교사, 하정용 신부
	인천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총)	안병욱, 조정옥 교사
	천안	월봉고등학교(고)	강정혜 교사
	본당	광주	광주대교구 쌍암동 성당(고)
광주대교구 쌍암동 성당(고)			박하영 교사
광주대교구 쌍암동 성당(중)			장현욱 교사
광주대교구 쌍암동 성당(총)			박현화 교사
광주대교구 쌍암동 성당(중)			신동일 교사
대구		대구대교구 범물 성당(중)	배수경 교사
		대구대교구 범물 성당(중)	허선아 교사
		대구대교구 복현 성당(총)	박폴린 수녀
		대구대교구 복현 성당(총)	허선아 교사
		대구대교구 사동 성당(총)	백민주 교사
		대구대교구 사동 성당(총)	서영예 교사
		대구대교구 사동 성당(중)	배승은 교사
		대구대교구 사동 성당(중)	정대현 교사
		대구대교구 사동 성당(고)	이태화 교사
		대구대교구 국우 성당(총)	김미영 교사
서울		서울대교구 공항동 성당(중)	이경선 교사
		서울대교구 공항동 성당(중)	안지훈 교사
		서울대교구 공항동 성당(총)	박진경 교사
		서울대교구 공항동 성당(총)	임복규 교사
기타		대구	흠스쿨링 또래모임(중)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시 작 일
학교	광주	은혜학교(고)	이명호 교사	2017.04.06
		대구	성의여자고등학교(고)A,B반	김미영 교사
	성의여자고등학교(고)A,B반		사금연 교사	2017.03.11
	성의여자고등학교(고)A,B반		성주영 교사	2017.03.11
	성의여자고등학교(고)A,B반		이태화 교사	2017.03.11
	성의여자고등학교(고)A,B반		허선아 교사	2017.03.11
	대간중학교(중)		서영희 교사	2017.03.21
	대간중학교(중)		최지인 수녀	2017.03.28
	선화여자고등학교(고)		배수경 교사	2017.03.18
	장산중학교(중)		사금연 교사	2017.03.28
	장산중학교(중)		전수영 교사	2017.03.28
	대전	대전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총)	이의정 신부	2017.03.03
	마산	성지여자중학교(중)A,B반	강태옥 교사	2017.03.22
		성지여자중학교(중)	김경숙 교사	2017.03.22
		성지여자중학교(중)	김정란 교사	2017.03.22
		성지여자중학교(중)A,B반	안경미 교사	2017.03.21
		성지여자중학교(중)	하채원 교사	2017.03.21
		성지여자중학교(중)A,B반	허인화 교사	2017.03.22
		성지여자중학교(중)	홍예지 교사	2017.03.21
		성지여자고등학교(고)A,B반	권혜정 교사	2017.03.15
		성지여자고등학교(고)	류은정 교사	2017.03.22
		성지여자고등학교(고)A,B반	장은영 교사	2017.03.14
	성지여자고등학교(고)	정은선 교사	2017.03.15	
	성지여자고등학교(고)A,B반	조경이 교사	2017.03.14	
	부산	서중학교(중)A,B반	강형섭 신부	2017.03.13
		서중학교(중)A,B반	김미진 교사	2017.03.13
		서중학교(중)	장은영 교사	2017.03.13
		서중학교(중)	김수남 교사	2017.03.13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총)	오주열 신부	2017.03.09
		무학중학교(중)	김길환 교사	2017.03.16
		무학중학교(중)	김준희 교사	2017.03.16
		무학중학교(중)	김효정 교사	2017.03.16
		무학중학교(중)A,B반	조안나 교사	2017.03.15
		계성고등학교(고)	공수진 교사	2017.03.13
		계성고등학교(고)A,B반	김기환 교사	2017.03.16
		계성고등학교(고)A,B반	김동렬 수사, 김영숙 교사	2017.03.14
		계성고등학교(고)	김미숙 수녀	2017.03.13
		계성고등학교(고)	김윤희 교사	2017.03.13
		계성고등학교(고)A,B반	김혜정 교사, 하정용 신부	2017.03.13
		계성고등학교(고)	김효진 교사	2017.03.13
계성고등학교(고)A,B반	박경숙 교사	2017.03.16		

진행현황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시 작 일
학교	서울	계성고등학교(고)A,B반	박종인 신부	2017.03.13
		계성고등학교(고)A,B반	박진경 교사	2017.03.14
		계성고등학교(고)A,B반	이경선 교사	2017.03.16
		계성고등학교(고)	임복규 교사	2017.03.20
	천안	불당고등학교(고)A,B반	최지훈 수사신부	2017.03.16
수도회	춘천	춘천교구 수도자 모임(총)	강정혜 교사	2017.03.29
본당	대구	대구대교구 동천 성당 자모회(총)	김혜선 수녀	2017.03.13
		대구대교구 동천 성당 자모회(총)	김외택 교사	2017.01.25
		대구대교구 동천 성당 자모회(총)	허선아 교사	2017.01.23
		대구대교구 성 토마스 성당(중)	이예람 교사	2017.03.04
		대구대교구 안강 성당(중)	문태근 교사	2017.03.18
		대구대교구 안강 성당(고)	서성진 교사	2017.03.18
		대구대교구 안강 성당(고)	박미경 교사	2017.03.18
		대구대교구 범물 성당(중)	김건희 교사	2017.03.16
		대구대교구 범물 성당(중)	정대현 교사	2017.03.19
		대구대교구 복현 성당(고)	허선아 교사	2017.04.09
		대구대교구 복현 성당(고)	김병건 교사	2017.04.09
		대구대교구 황금 성당(총)	이순태 교사	2017.02.24
	대구대교구 범물 성당(총)	배수경 교사	2017.03.25	
	마산	마산교구 가좌동 성당(중)	김성민 교사	2017.03.18
		마산교구 가좌동 성당(고)	김성민 교사	2017.03.18
		마산교구 가좌동 성당(중,고)	정수진 교사	2017.03.18
		마산교구 가좌동 성당(총)	강형섭 신부	2017.04.08
		마산교구 가좌동 성당(총)	김미진 교사	2017.04.08
	서울	서울대교구 여의도동 성당(중)	이희준 교사	2017.03.11
		서울대교구 여의도동 성당(중)	이종원 교사	2017.03.11
		서울대교구 여의도동 성당(고)	김효진 교사	2017.03.12
		서울대교구 여의도동 성당(고)	오준혁 교사	2017.03.11
		서울대교구 여의도동 성당(총)	공수진 교사	2017.03.18
		서울대교구 망우동 성당(총)	임복규 교사	2017.04.09
		서울대교구 망우동 성당(중)	김송연 교사	2017.03.19
	인천	인천교구 검단동 성당(중)	김유민 교사	2017.03.18
	기타	대구	성화 자모회(총)	사금연 교사
동천 축구클럽(중)			정대현 교사	2017.02.10
동천 학부모회(총)			서영예 교사	2017.02.03
춘천	춘천교구 젊은이 모임(총)	김혜선 수녀	2017.03.09	
기관	마산	진해장애인복지관(총)A,B반	김영은 교사	2017.03.14
		푸른존(중)	김영숙 교사	2017.03.16
	서울	푸른존(중)	김기환 교사	2017.03.09
		푸른존(총)	김기환 교사	2017.03.16
		푸른존(총)	조정란 교사	2017.03.09



알림/방

☆ 2017년 한국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 - 진행 현황

제137차 서울

- 주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 주최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 기간 : 6월 17일(토)~18일(일), 24일(토)~25일(일)
- 장소 : 노동사목회관 (보문동)

제139차 인천

- 주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 주최 : 인천교구 생명사랑운동본부
- 기간 : 7월 15일(토)~16일(일), 22일(토)~23일(일)
- 장소 : 인천교구 사회사목센터 지하1층 강당

제141차 부산

- 주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 주최 : 올리베파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부산)
- 기간 : 9월 18일(월)~21일(목)
- 장소 : 성분도 은혜의 집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제138차 광주

- 주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 주최 :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 기간 : 7월 15일(토)~16일(일), 22일(토)~23일(일)
- 장소 :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40차 대전

- 주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 주최 : 대전교구 청소년사목국
- 기간 : 8월 19일(토)~20일(일), 26일(토)~27일(일)
- 장소 : 대전교구 청소년교육원 대철회관

☆ 후원회원과 틴스타 교사를 위한 미사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틴스타는 후원하신분과 틴스타 교사를 위해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11시 패밀리아 채플**(명동 교구청 신관 앞 건물)에서 **생명을 위한 율레미사**(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주관)에서 함께 봉헌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율레미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후원통장** : 우리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1005-100-998647
국민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875401-01-517401

발행일 : 2017년 6월 (통권 제49호 발행)

발행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명동2가) 가톨릭회관 603호

전 화 : 02)727-2358, 755-2629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E-mail : kteenstar@hanmail.net

팩 스 : 02)727-2243